

食文化 속의 傳統民俗酒

劉太鍾

建陽大學校 食文化研究所長

I. 序 論

술은 제각기 그 나라의 風土와 民俗을 담고 있다. 술은 종류가 다를지언정 어느 술이고 주성분은 酒精이다. 酒精의 精이 마음 精字인 것처럼 英·佛·獨語에서도 酒精을 표현하는 말이 spirit, espri, geist 등으로 모두 精神이란 말로 쓰이고 있다(유태중, 1977).

東西洋을 막론하고 술은 사람에게 神秘로운 존재였으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보여진다.

술만큼 階級의 上下나 文化의 高低에 영향받지 않고 人類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도 없는데 그 媒介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酒精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個性이 강한 술이 土着化되었고, 이들 술은 추위가 심한 곳에선 추위에 견디는데, 더운 나라에선 더위를 잊기 위해서, 고민과 걱정이 많게 마련인 人生에겐 慰安을 주는 것으로 人類와 함께 자라고 생활해온 것이다.

多情한 친구와 만나 懷抱를 푸는데도 한 잔, 일이 成事되었으니 한 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한 잔, 언짢은 일이 있으니 한 잔, 기뻐서도 한 잔, 人生에 있어 어느 때라도 술을 마시게 된다.

II. 술의 來歷

1. 神話時代의 술

이집트神話에 의하면 Isis女神의 남편인 Osiris가

보리로 麥酒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스神話에 의하면 Dionysos가 술의 始祖라고 한다. 술을 가리켜 'Bacchus' 또는 'Bacchus의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Dionysos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그리스의 아티카에서는 Dionysos祭라는 포도주祭가 12월에 거행되고 있다.

舊約聖書에 의하면 아담의 10代孫 Noah時代에 큰 洪水가 있어 물에 잠겼다고 한다. Noah는 方舟를 만들어 그 一族과 動植物을 싣고 아라랏山에 도착하여 生物은 再出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속에는 포도의 씨도 들어있어 포도주를 빚게 되었다고 한다.

예수도 가나안의 婚禮에 스스로 술을 빚었으며 최후의 만찬에선 포도주를 弟子와 함께 마셨다고 한다.

로마神話에선 Bacchus가 처음으로 술을 빚었다고 해서 Bacchus를 술의 神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神話時代이야기로는 檀君神話가 있다. 檀君께서 백성들에게 農事하는 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가을에 햇곡이 나면 높은 산에 올라 神에게 祭祀를 지냈는데 햇곡으로 만든 술과 떡, 그리고 소를 잡아서 祭物로 썼다고 한다.

2. 文獻上으로 본 술의 起源

中國의 古書 戰國策에는 술에 대한 記錄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옛날 황제의 딸 儀狄이 술을 맛있게 만들어 禹王(夏나라 때의 왕)에게 올렸더니 禹王이 이를 맛보고는 後世에 반드시 이 술로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술을 끊

고 儀狄를 멀리하였다.¹⁾

「昔者帝女儀狄作酒而美 進而禹, 禹飲而甘之遂疏 儀狄絕旨酒 曰後世必有以酒亡其國者…」

이 글에서 보면 夏나라 때인 紀元前 2千年代에 이 미 中國에는 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禹王 때에 諸侯를 소집하여 塗山會라는 모임을 가졌을 때 檀君의 子孫을 초청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술을 媒介로 정치적인 왕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文獻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古三國史記」이다. 그중 東明聖王之 建國談 속에 술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동양맥주, 1972).

河伯의 세 딸 柳花, 萱花, 葦花가 더위를 피해 青河(지금의 압록강)의 熊心淵에서 놀고 있었다. 이때 天帝의 아들 解慕漱가 세 處女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臣下를 시켜 가까이 하려고 하였으나 그녀들은 응하지 않았다.

그 뒤 解慕漱는 臣下의 말을 듣고 새로 雄壯한 宮室을 짓고 그녀들을 초청하였다. 초대에 응한 세 處女가 술대접을 받고 滿醉한 후 돌아 가려하자 解慕漱는 앞을 가로 막고 하소연을 하였다. 세 處女가 놀라 달아났는데 그 중 柳花만이 解慕漱에게 잡혀 宮殿에서 잠을 자게 되어 情이 들고 말았다. 그 후 朱蒙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 東名聖王之 建國談이다.

이 神話를 통해 술의 역사가 오래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어떻게 빚은 술인지는 알 길이 없다. 술의 始祖가 儀狄으로 傳해지고 있으나 이것이 傳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徐有榘(朝鮮朝 光海君)는 그의 著書 林園經濟中 酒禮總叙에서 말하고 있다.²⁾

3. 科學的 側面에서 본 술의 역사

農耕·牧畜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술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人類가 生存을 위해 여러번의 大移動을 한 것은 氣候가 溫和하고 自然의 食糧이 풍부한 곳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山野에서 나무의 열매와 果實을 식량으로 했을 것이다. 먹다 남은 것은 備蓄할 줄을 몰라 아무데나 放置했을 것이다. 얼마 후 그들은 虛飢에 지치게 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근처에 있는 열매와 과실을 모두 따버렸기 때문에 糧食을 구하지를 못했고 얼마 전 먹다 남긴 果實을 생각해 냈을 것이다.

放置한 果實은 모양이 이그러지고 自然醱酵가 된 것이다. 독특한 향이 嗅覺을 자극했고 시장끼를 채우려 그대로 먹어 본 것이다. 그러자 醉氣가 곧 全身에 돌아 이상한 衝擊을 갖게 되었고 흥분해서 날뛰고 아우성을 치다가 피로에 지쳐 그만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전날 흥분했던 것이 썩은 果實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술의 自然發生的 起源일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유태종, 1977).

이런 類의 술은 學術的으로는 單醱酵酒라고 한다.

사람이 술을 빚는 경우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하나는 쌀이나 보리와 같은 것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澱粉質을 酵素作用으로 糖化시켜서 酵母로 酒精化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포도와 같은 果實이나 벌꿀처럼 單糖類가 많은 材料를 바로 酵母의 作用으로 酒精化시키는 방법이다.

제조원리로 보아 果實酒의 歷史가 오래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韓國酒店의 내력

우리나라 최초의 酒店은 高麗 成宗 2年(AD 983)에 開店했다고 한다. 成禮·樂賓·延齡·玉將·喜賓 등의 이름으로 당시의 서울인 松都에서 문을 열었다고 한다(眞露, 1975). 이들 酒店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雅趣있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文人들이 出入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肅宗 7年(AD 1102)에는 서울의 左右 두 곳에 庶民을 위한 술집을 내어 사 마시게 했으며 9년에는 각 고을에 酒店을 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商去來를 하여 돈을 잘 流通해 쓰라고 권장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鐵錢을 鑄造하여 백성들에게 流通을 원활히 하려고 이러한 酒店을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鐵錢의 流通은 불과 數年이 지나 仁宗 初에는 이미 돈의 사용이 中止되어 倉庫에 넣어두게

1) 朝鮮酒造協會：朝鮮酒造史

2) 徐有榘：林園經濟志

되었다.

唐時의 僧侶는 社會的으로 대우를 받아 이들이 왕래할 때에는 宿所를 無料로 제공받았다. 그래서 僧侶들은 寺刹을 旅館과 같이 여겼으며, 寺刹에서는 旅館業을 兼하기도 하였으며 그를 기화로 그들은 술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다.

玄宗 元年(AD 1010) 僧侶들에게 술釀造를 禁止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僧侶들은 釀造와 販賣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寺刹에서 燕燈會나 八關會 行事를 할 때면 一般人이 僧侶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그래서 술은 떨어지지 않았다.³⁾ 그렇게 되자 山中 有名 寺刹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고 술맛도 좋았다고 한다.

高麗 文宗 때 처음으로 良溫署라는 職制를 두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朝廷의 儀式用 술을 양조하였다.

朝鮮朝에서는 太祖 때 高麗의 制度를 그대로 계승하여 司醢署를 운영하였다. 그 후 폐지되어 內資寺로 통합하였다. 그때부터 燕亨(國賓을 대접하는 잔치)에 관한 일을 한 곳에서 맡게 되었다.

內資寺는 寔會와 膳饌을 준비하던 곳이어서 倉庫가 있었다 高麗朝에는 富興倉이라 불렀고, 이곳에서 飲食을 만들었다. 朝鮮朝에 와서는 義成倉이라 하여 高麗의 制度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內資寺에서는 누룩만드는 일과 술담글 때 쓰는 精製穀食과 釀造用水 등을 管掌하였다.

朝鮮朝 英祖初期에 술과는 女人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前까지는 酒母가 있어 자기 집에서 술을 팔았다. 이러한 賣酒家가 생김에 따라 內外하는 酒店이 생겨났다. 女人은 외간 男子와 서로 對하지 않는 것이 禮이므로 안에서 술상만 봐 놓으면 그집 從이 술심부름을 했다.

술을 파는 일은 地方의 市場이나 酒幕에서도 이루어졌다.

大衆이 모여드는 술집은 木槨집이었다.⁴⁾ 긴 나무 판을 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안주를 집어가며 술을 마시는 곳이었다. 목로 옆에 主人이 앉아 있고 뒤편에 비스듬히 세운 목판에다 옥포, 어포 등 마른

안주를 진열하고 그 다른 편에 불고기, 편육, 빈대떡, 산적 같은 진안주를 널어 놓는다.

그 반대편에는 큰 화덕에 숯불을 피워놓고 석쇠를 얹어 놓는다. 그 앞에 안주 굽는 중노미가 큰 젓가락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와서 석쇠에 엮고 목로앞에 와서 술을 청한다.

술잔을 늘어 놓고 양푼에서 술중지로 술을 뜨는데 장단을 맞추어 손님의 흥취를 돋군다. 목로집은 몇 잔을 마시더라도 서서 마셔야 한다는 不文律이 있었다. 목로집에서 앉아먹는 것을 보면 다른 손님이 버릇없는 놈이라 하여 시비가 붙게 마련이었다 한다.

木槨집의 발달은 地方의 市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壬辰倭亂 때 明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었으나 좋은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英祖, 貞祖 때에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市場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廣州의 沙坪場, 松坡의 松坡場, 安城의 邑內場, 交河의 恭陵場 등이 유명했다.

이 市場에서는 日用雜貨뿐 아니라 農民에게 필요한 牛市場도 같이 있었다. 市場은 시골사람들의 유일한 社交場이 되었다. 오랫동안 친구도 만나고 一家 親戚도 만나 消息을 서로 전하며 술잔을 통해서 懷抱를 풀었다. 이들은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으며 흥이 나면 한 집에서 그치지 않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마셨다고 한다.

5. 韓國人의 飲酒 樣態

「魏志」東夷傳에 의하면 古代祭天儀式에 대한 記錄으로 迎鼓(扶餘), 東盟(高句麗), 舞天(濊) 등이 있다(朴容九, 1974).

이러한 部落祭에서는 밤낮으로 食飲하였다고 한다. 5월에 播種을 마치면 神에게 제사하는데 群衆이 모여 노래부르고 춤추며 술마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며, 춤출 땀 수십 인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면서 땅을 디디고 손발을 닦았다 높였다 하여 서로 장단을 맞추되 鐸舞와 비슷했다.

10월에 農事가 끝나면 또 이렇게 하였다.

農耕民族은 草木이 싹트는 봄철을 한 해의 시작으

3) 高麗史志 體

4) 朝鮮酒造協會, 朝鮮酒造史

로 여겼고,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계절을 한 해의 끝막음으로 생각했다. 農事가 잘 되기를 祈願하는 農耕儀禮가 많았고 대개 술을 마시는 契機가 되었다.

이러한 儀禮는 지방에 따라 곳으로 발전하였는데 1例를 들면 楊州지방의 소놀이굿이 있다. 소놀이굿은 巫女의 열두거리굿 중에서 農神과 產神을 겸한 帝釋神을 모시는 帝釋거리에 이어서 祈豐을 위한 놀이로 시작된다. 무당은 제석거리에 입었던대로 흰 고깔장삼에 붉은 架沙와 띠를 매고 봉당에서 있는 馬夫와 소를 향해 선다. 이숙한 밤에 馬夫와 巫堂은 打鈴으로 對話를 엮어가며 춤과 담 飲酒를 하여 흥취를 돋운다.

農事를 짓는 도중에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勞苦를 위로하고자 술을 대접하는 風俗이 보편화되었다(梁在淵 등, 1971). 이를 「호미씻이」·「술맥이 놀이」·「머슴날」·「농부의 날」이라 하여 농군들은 農樂을 치며서 놀게 하고 술과 음식을 내어 흥겹게 대접하는 것인데 嶺·湖南 농촌에서는 지금도 볼 수 있는 놀이이다.

全國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秋收感謝祭는 8月 秋夕에 祖上에게 茶禮 올리는 것과 安宅告祀이다.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햅쌀로 新稻酒를 빙는다.

告祀란 곳보다 소규모의 정성을 말하며, 같은 語源에서 생긴 말이다. 고사에는 주로 시루떡·濁酒·北魚를 바치는게 보통이다.

6. 歲時風俗에 나타난 飲酒

正祖茶禮 : 설날아침 일찍 歲饌과 歲酒를 祀堂에 陳設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正祖茶禮라고 한다.

歲拜 : 세배를 받는 측에서는 어른에게는 酒食을 마련했다가 대접하며 情談을 나눈다.

耳明酒 : 上元日 이른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모두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 「귀밝이술」이다. 耳明酒는 뜨겁게 하지 않고 冷酒로 마시며, 1년동안 좋은 消息을 듣는다고도 믿었다. 耳明酒는 婦女子도 마신다.

머슴날 : 농가에서는 2월 1일을 머슴날(奴婢日)이라고 한다. 농사준비를 앞두고 머슴으로 하여금 하루를 즐겁게 쉬게 하여 主人은 酒食을 한턱 내며 머슴들은 農樂을 치고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

다.

그 해에 20세가 된 머슴아이는 이날에 成人에게 술을 한턱 낸다. 成人에게 한턱을 낸 다음부터는 成人취급을 받아 어른들과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다.

三月의 時食 : 옛날에는 봄철에 마시는 술을 각 가정에서 솜씨대로 빙었다. 술을 쌀로만 빙는 것이 아니고 꽃·草根木皮 등을 써서 색다른 술을 만들어 마셨다. 이러한 술로는 杜鵑酒·桃花酒·過夏酒·梨薑酒 등을 들 수 있다.

流頭 : 6月 15일 流頭日에는 文士들이 酒肴를 장만하여 溪谷이나 水亭을 찾아가서 風月을 읊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것을 流頭宴이라고 한다.

百種日 : 7月 15일이 百種日인데 사람들은 祖上の 祀堂에 薦新을 드리며 맛있는 酒肴를 갖추어 歌舞로 하루를 즐긴다. 농촌에는 百種장이 서는데, 머슴을 둔 집에서는 머슴을 쉬게 하고 돈을 주어 장에 가서 하루를 놀게 하니 물건을 사거나 醉興에 젓게 된다.

호미씻이 : 草宴 또는 머슴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7월 15일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따라 擇日한다. 각 가정에서는 제각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山이나 溪谷에 모여 歌舞로 하루를 즐긴다. 이 때에 마을 중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일을 잘 했다고 칭찬하며, 술을 권하여 위로하고 사탕을 씌워 소에 태워 마을을 돌아 다니게 한다. 그러면 그 집의 主人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대접을 한다.

秋夕 : 新穀으로 떡도 하고 술도 빙어 茶禮를 지내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며 省墓를 한다.

九月 : 9月 9일은 重陽이다.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은 때를 지어 山이나 溪谷을 찾아가서 菊花煎같은 時食을 먹고 醉하며 하루를 즐긴다.

時祭 : 10月 15일을 전후하여 五代祖까지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낸다. 時祭 때에는 遠近의 後孫들이 모두 墓앞에 모여 祭를 지낸다. 祭物은 後孫 중에서 만들거나 산지기가 齋室에서 장만하는데 飯餅과 酒饌을 마련하여 集團으로 지낸다(梁在淵 등, 1971).

以上的 歲時風俗外에 술을 마시는 대표적인 경우는 回甲宴과 冠婚喪祭 때이다.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回甲을 祝賀하였는가는 확실치 않으나 高麗史에 의하면 高麗末부터로 추측이 된다.

婚禮에서는 기러기를 바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

에 奠雁禮라고도 하는데 奠雁이 끝나면 新郎·新婦의 相見禮가 있고 合巹 혹은 合歡의 술잔을 각각 마시게 함으로써 儀式은 끝나게 되어 있다.

7. 文獻上에 나타난 飲酒

高麗圖經 鄉飲條⁵⁾에 보면 고려에서는 酒禮를 매우 重하게 여긴다고 소개되고 있다. 鄉飲이란 온 고을의 儒生이 모여 鄉約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이다. 그런데 酒行에 節度가 없어서 많이 권하는 것을 禮로 안다는 것이다.

잔치나 술자리에서 歌舞와 風流를 가지고 흥을 돋우는 것을 業으로 삼는 女人이 妓生이다. 이 妓生の 起原에 대해 金寬峰(1977)은 新羅의 源花인 俊貞과 南毛로 보고 있다.

또 金庚信은 慶州 天官寺의 傳說에 얽힌 天官이란 妓生과 사랑을 한 것으로 破閑集과 東國輿地勝覽 慶州府條에 소개되고 있다.

高麗 때에는 王이 베푸는 큰 잔치에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王이 妓生을 이끌고 사냥을 나가기도 하였다. 高麗史 樂志에 의하면 官中の 큰 잔치에서 百官들이 飲酒할 때 妓生들은 歌舞로 흥을 돋우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地方의 官家에도 官妓를 두어 宴會式의 風流를 즐겼다고 한다.

高麗史 志 刑法 二에 의하면 「근래 僧俗雜類가 모여 때를 지어 이름을 萬佛香徒라고 하면서 念佛과 讀經을 하고, 또 內外寺社의 僧徒가 술을 팔며, 또는 兵器를 가지고 포악한 짓을 하므로 禁止시켜 달라」는 上疏가 있었다. 飲酒로 인한 弊로 禁酒의 필요성이 擡頭된 것이라 볼 수 있다. 釀造酒보다 酒精度數가 높은 蒸溜酒인 燒酒가 도입되면서 그 폐해가 컸던 것이다. 高麗 恭愍王 때의 武將 金眞은 燒酒를 즐겨 燒酒徒라는 別名을 얻을 정도였고 職務를 怠慢히 했다고 한다(동양맥주, 1972).

朝鮮朝에 들어서도 燒酒의 유행이 더해 太宗이 昇遐한 후 한 달이 넘도록 世宗이 술을 들지 않자 臣下들이 여러번 권해, 마지못한 世宗은 燒酒 반잔을 들었다고 하며, 士大夫집의 잔치 때 소주를 쓰는데 요즘에는 아무나 함부로 사용해서 穀食의 浪費가 많으

니 禁止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進言이 있었다고 한다. 소주를 많이 마시면 견디지 못해 蠶은 작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그害를 막기 위해 소주 한잔 마시면 바로 冷水 한 잔을 마시도록 했다.

太宗實錄⁶⁾에 의하면 「議政府에서 詣闕하여 藥酒 드실 것을 여러번 請하니 그 進言에 따르시고 처음에 상감께서는 가뭄이 심한 것을 우려하신 나머지 水刺床에 올리는 饌을 줄이게 하고 약주를 끊으셨다 한다. 20餘日 後 비가 흠족이 내리자 술을 進上했다고 한다. 또 가뭄으로 禁酒令을 내리시고 藥酒를 禁止하였다」고 한다. 禁酒令下에서 特權階級이 이를 어기는 핑계로 藥酒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說도 있다.

世宗大王은 술을 삼가라는 戒酒文을 八道에 公布하였는데 그 中에 新羅는 鮑石亭에서 亡하고 百濟는 藥花岩에서 滅했다는 글귀가 있다.

候百濟의 甄蓋이 慶州에 쳐들어 왔을 때 경애왕은 鮑石亭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석정은 亡國의 상징처럼 여기게 되었다. 포석정은 君親와 臣下, 將軍과 部下가 한잔 술을 물에 띄워 돌려가며 마심으로써 一心同體를 다지는 儀禮用이었다. 큰 일을 할 때마다 이 포석정에서 한 잔 술에 서로가 입을 댄으로서 맺어진 一體化는 큰 意義를 갖는 것이었다.

대포잔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여러 사람이 한잔 술을 마시려면 잔이 커야 했고 서로 나누어 마시는 원시적인 잔이 바가지였다. 옛 中國에서도 벽에 이 대포를 걸어놓고 意氣投合하는 사람이 오면 그 대포잔으로 술을 들며 먹었고 離別할 때면 작은 단지에 술을 빚어 큰 바가지로 떠서 나누어 마신 다음 떠나 보내고 友情의 不變을 표시했었다고 한다.

慶州의 古墳에서도 禮器의 술잔으로 쓰였던 바가지모양의 陶甕가 出土되고 있다.

宮中の 祭祀를 도맡았던 奉常寺에서 정갈한 땅에 박을 길러 제사 때 술잔으로 쓰고난 다음에 땅에 묻었다는 기록이 世宗實錄(5年 10月)에 있다.

婚禮 때 한 조롱박을 들로 쪼개어 만든 합근박에

5) 高麗圖經 鄉飲條

6) 李朝實錄

다 신랑 신부가 서로 입을 댄으로써 一心同體를 서약하는 합근례도 이에 由來한 것이다.

한 잔의 술을 나누어 마시는 대포는 우리 나라에서 일반화되었다. 관아에선 새 官員이 신임해 오거나 會議가 끝나면 異質要素를 없애고 淸心하는 뜻에서 대포잔으로 술을 나누어 마시는 관습이 있었다.

여염에서도 風流의 結社나 謝社, 계 모임에선 友誼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연중음을 했다고 海東譯史(卷 3)에 소개되어 있다.⁷⁾

조직력과 결속력이 강했던 등짐 붓짐장수인 褌負商들이 같은 보부상을 말할 때는 大袍之交하고 했다. 대포로 술을 나누어 마신 사이는 이미 그러한 정신력·정서적 結束力을 지녔다는 것이 되며 대포문화는 그 결속력을 필요로 한 보부상 사이에 계승되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잔을 주고 받는 소위 對酌文化를 지니게 된 것도 이 한잔 술을 나누어 마시는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 술을 혼자 마시는 獨酌이 原型으로 되어 있다. 宴會席에서 여러 사람이 對酌을 한다 해도 乾杯 정도이지 한잔 술을 交替하는 일은 없다. 이웃 中國도 獨酌文化이다. 月下獨酌이란 有明한 詩를 비롯해서 李太白의 酒詩 대부분이 獨酌詩이고 白樂天도 마찬가지이다.

朝鮮朝 明宗 때의 정승 尙震은 달을 보며 술을 혼자 마시면서도 다음과 같이 달과 自身을 一體化하는 對酌文化性 또는 대포문화성 음주를 하고 있다. 「달을 술잔 속에 담아 잔 기우니 달이 또한 나의 창자 속에 들어 안팎의 맑은 빛이 서로 오가니 그 아니 좋은가.」

宣祖 때 정승 신용개도 아홉송이 菊花花鉢을 아홉분의 손님으로 여기고 꽃과 對酌을 하는데 꽃으로부터 술잔을 받을 때는 菊花꽃잎을 띄워 받아 마시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傳承되어온 대포문화는 그 精神的·精緒的 餘韻과 더불어 다른 나라에 없는 술잔 주고 받는 對酌文化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Ⅲ. 結 論

오랜 옛날부터 人類는 저들의 運命을 支配하고 있는 힘에 대해 공포를 느끼며 살아왔다. 술은 이러한 공포심을 무마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을 스스로 體驗할 勇氣를 주었고, 이러한 힘을 支配·征服하려는 힘마저 갖게 하였다. 그래서 술은 宗教儀式의 자리를 물려 받았다. 술은 보편적인 文化의 一役을 맡게 되었다. 곧 술은 契約 認准·戴冠式·祝祭 등 모든 人間儀式에 이용되어 왔다. 심지어는 장례식의 苦惱도 술로 달래고 있다.

少量의 술은 수줍은 이에게 입을 열어주며 性的인 反應도 일으킨다. 飲酒는 親愛感과 親友愛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보다 덜 自己意識의이 되며 보다 덜 심각해지며, 보다 덜 內向的의이 되며 술은 心的 平衡과 社交性을 주는 이른바 人間的 충동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술을 가리켜 百藥之長이라고도 하고, 敗家亡身之根源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술은 확실히 사람에게 極과 極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술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술을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술을 마셔 自然과 人間을 보다 아름답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술이 갖는 長點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술을 마셔 남의 短點, 缺點을 너그럽게 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나, 술을 마셔 보다 정다운 마음으로 보다 眞實된 마음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술을 마셔 마음이 호탕해지고 機智의 샘이 넘쳐 흐르게 되며, 이웃의 마음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인간적인 훈훈함을 풍기게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百藥之長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술의 힘을 빌어 못할 소리를 하든가, 大聲痛哭하든가, 남의 욕을 하든가, 이웃과 是非를 벌리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든가, 暴酒를 해서 健康을 해치기도 하므로 百毒之源으로 흑평을 받게 되기도 한다.

7) 韓致齋：海東譯史

酒道에 있어 모범적인 민족은 中國의 漢民族으로 定評이 나 있다. 그들은 술에 醉해 추잡한 言動을 하지 않으며 거리에서도 醉客을 볼 수 없다고 한다.

같은 뿌리를 갖는 우리 나라는 正反對인 것이다. 언제부터 그런 弊習이 생겼는지 확실치 않으나 舊韓末 以後 亡國의 설움을 달래고 抗日의 울분을 술로 풀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적인 술집으로 舊韓末까지 존속했던 內外 酒家에서의 飲酒樣態를 살펴 보면 매우 흥미가 있다.

大門앞에 內外 酒家라 쓰고 술병 모양으로 둘레를 그려 붙여 놓고 식별했다. 술을 마시는 男女 손님과 술을 파는 안주인이 서로 對面을 하지 않고 술을 파는 東西古수에 있는 술집이다.

金和鎮氏의 回顧談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경이 벌어진다고 한다. 손님이 門前에서 訪問客처럼 「이리 오너라」고 부른다. 그러면 식모나 兒女로 하여금 大門과 中門 사이에 돛자리와 방석을 펴놓고 들어가 湯과 목·편육 등으로 간단한 술상을 차린다. 심부름할 사람이 없는 內外 酒家에서는 안팎 목소리로만 「황송하나 손님께서 거기 있는 자리를 깔고 계시라고 여쭙어라」 한다. 그러면 손님은 자리를 깔고 앉아 「술상 내 보내시라고 여쭙어라」 한다. 술상을 中門 앞에 놓아두고 들어가 「門前에 놓아 두었다고 여쭙어라」하면 술상을 손님이 운반한다. 다 마시고 나면 「몇 酒煎자가 나왔으며 값이 얼마냐고 여쭙어라」 한다. 「몇 酒煎자에 한 酒煎자 값이 얼마라고 여쭙어라」 하면 술손님은 술값을 술상 위에 놓고 「잘 먹고 간다고 여쭙어라」 하며 나간다(李圭泰, 1983).

직접 對話를 하면서도 피차 中間에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仲介者를 가정하고 말을 주고 받는다. 대단한 禮儀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儒家에서 行한 禮의 하나인 鄉飲酒禮 또한 酒道の 格式이 대단했다. 五經의 하나인 禮記⁸⁾에 따른 것으로 冠禮, 婚禮, 喪禮, 祭禮, 鄉飲酒禮, 相見禮 中 하나이다.

衣冠을 갖춘 主人이 請하고 싶은 손님의 집을 찾아가 再拜하면서 「술마시는 禮節을 거행코자 하니 선비께서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하고 提議한다.

손님도 再拜하고 「나는 德이 없고 學識이 不足하니 請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거듭 사양하다 마지 못해 하면서 승낙한다. 원래 中國에서 傳해진 예절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韓末까지 全國 231個 鄉校와 書院 및 書堂에서 1년에 1회씩 치러졌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선비들이 同僚선비를 청해 술을 대접할 때의 예절로 삼아왔다.

이 예절에서 특이한 것은 그렇게 엄격한 가운데서도 樂工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케 하여 興을 돋구었으며 술을 마시기 전에 詩經 小雅篇에 나오는 鹿鳴章(呦呦鹿鳴 食野之芩 我有嘉賓 鼓瑟鼓琴 和樂且湛 以有之酒 以燕嘉賓之心)을 읊어 風流의 멋을 잃지 않고 있는 점이다.⁹⁾

또 鄉飲酒禮에서 主人이 반드시 술잔 하나로 술을 돌려가며 손님에게 권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酒席의 總和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主人이 술을 마시지 않고 客에게만 술을 권하는 것은 큰 失禮로 여기고 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권하는 것은 罰酒로 여겨 禮儀에 어긋난다고 여긴 까닭이다.

술잔을 돌릴 때마다 손과 잔을 씻고 술잔을 주고 받을 때마다 큰 절을 해야 하는 것이 향음주례이다.

하늘이 낸 술과 飲食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과 모임을 흐뭇하게 즐기도록 한 儀式이었으며, 음식은 반드시 儉素하나 정결하게 갖추도록 한 의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禮節을 잘 지킨 社會에서는 술상이 조출해도 情分이 두터워졌고, 술자리가 잦을수록 禮節이 더욱 깎듯하여 仁厚敦篤한 德風이 社會의 한 氣風으로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非酒道이면 不飲이 원칙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近者에는 추잡하기 짝이 없는 醉客들의 作態에 目擊하게 된다. 이러한 음주 풍속은 禮法에 크게 어긋나고 있으며 風流의 멋 또한 크게 타락한 것이다.

달 밝은 저녁, 꽃피는 저녁, 비오는 밤, 눈내리는 밤, 친구와 더불어 한잔 술을 통해 情懷를 나누는다고 할 때 술이야말로 至樂至純에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은 기쁨을 더욱 기쁘게 함으로서 삶의 充實함을 북돋우기도 하고, 슬픔은 이를 擴大한 다음 그 슬픔

8) 禮記

9) 詩經

을 客觀化하게 함으로써 慰安을 주기도 한다.

기쁨과 즐거움, 慰安을 얻기 위해 마시는 술이 남에게 被害를 주는 것이라면 술을 冒瀆하는 行爲라 아니할 수 없다.

술이 人間을 보다 人間の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술이야말로 恩寵이며 天祿인 것이다. 모름지기 술을 百樂의 長으로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다. 그것이 참다운 酒道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金寬峰 : 한국풍물수필. 서울, 가정문고사. 1977.
2. 東洋麥酒 : OB二十年史. 서울, 주식회사 동양. 1972.
3. 朴容九 : 한국식료품사. 서울, 正音社. 1974.
4. 양재연·임동권·장덕순·최길성 : 한국풍속지. 서울, 을류문화사. 1971.
5. 劉太鍾 : 한국의 銘酒. 서울, 중앙일보사. 1977.
6. 李圭泰 : 백화社報. 서울, 주식회사 백화. 1983.
7. 眞露 : 眞露五十年史. 서울, 주식회사 진로. 1975.